



People & market

임종환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장

“도매시장법인은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법인의 안정경영과 투자활성화는 모든 농업인의 경영활동과 직결됩니다. 앞으로 출하농업인과 상생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환 제16대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회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자재값 상승 등 국내 농업·농촌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지는 만큼 도매시장법인의 역할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통과된 개정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언급하며 생산자, 출하자의 수취가격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도매시장법인의 책임있는 경영을 강조했다.



수취價 향상·권익보호 앞장... 상생·발전

정가·수의매매로 품질 우수한 제품 도매시장 유통

로 기대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시장도매인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앞으로 시장도매인을 확대해 나갈 것 같은 분위기를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시장도매인 논란은 실제 도매시장유통의 불필요한 혼란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신중한 표현이 요구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매시장은 반입되는 모든 물건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돼 있으므로 영세 소농 출하자를 위해 필요한 경로이고, 규격화·브랜드화·규모화된 물건은 대형마트와 직거래 하는 게 나은 것처럼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도매시장이 가장 많은 농산물을 유통시키고 다른 경로에서 공정하게 하지 못하는 가격발견기능도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품질의 물건도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 FTA 농가피해에 대한 도매시장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판매 대행기능 말고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이 농업보호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매시장법인이 무이자 출하촉진자금을 더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금리(현행 4%)를 낮추고 지원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도매시장을 통해 농업인들이 가공한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취급품목의 확대를 검토하고 공영도매시장이라는 공적시설의 활용도 증대 및 산지와 구매자 지원 차원에서의 급식센터기능이나 식자재유통 등 사업기능 추가를 추진해야 합니다. 시설 노후화와 미비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저온창고 확충, 점포 정돈 등 시설정비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편집팀

- 최근 통과된 개정농안법에 주목할 사항은

“정가매매, 수의매매를 경매제도와 같이 거래 원칙화했습니다. 출하농업인이나 구매자의 요구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매가 수급 사정을 반영한 가격 형성, 출하자·구매자에 대한 형평성 확보 등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이번 조치로 차별적 조건의 거래 즉 품질, 가격, 수량, 시간, 예약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



요즘 대형유통업체와 과일가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과일은 단연 딸기다. 소비자는 딸기를 구매함에 있어 맛과 경도 그리고 선별상태를 중시한다. 이를 반영하듯 가락시장에서도 소비자의 니즈에 가장 적합한 딸기가 당연 최고가격을 받는다.

담양농협 딸기작목반에서 출하되고 있는 선향품종 '청수대숲딸기'가 바로 가락시장 동부팜청과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딸기다. 20여 년 전부터 출하되고 있는 '청수대숲딸기'는 명성과 전통을 가격에 그대로 담고 있어 동부팜청과에서 타 지역 딸기보다 2kg 한 박스가 평균 7000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청수대숲딸기'의 우수성을 동부팜청과의 눈을 통해 재확인했다.

‘까다로운 선별’ 높은가격 거래 비결

● 고품질 브랜드 인식으로 높은 가격 형성

담양농협 딸기 작목반은 20여 년 전부터 까다로운 선별과 높은 당도로 시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 항상 시장에서 원하는 선별과정과 경도, 당도를 확인해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왔고 현재도 더 우수한 품질을 만들어 우리나라 상위 10%를 위한 고품질 딸기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타 지역보다 평균 7000원 이상 높은 가격에 가락시장 동부팜청과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신성오 동부팜청과 차장은 “담양농협 딸기 작목반에서 출하되는 청수대숲딸기는 선별이 잘 돼 시장에 출하되기 때문에 흠 잡을 게 없다”며 “경매할 때 눈으로 봐도 쉽게 알 수 있으며 맛도 타 지역보다 우수해 경매가격이 2kg 한 박스당 2만8000~3만3000원 대에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배 중도매인(변장유통 대표) 역시 “이곳 딸기는 90% 이상 완숙된 딸기를 출하하고 있으며 맛도 뛰어나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체계적인 관리, 고품질 딸기 생산

담양농협 딸기작목반은 출하 전 매일 경도와 당도를 체크해 품질기준에 맞는 딸기만을 출하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작목회원들과 고품질 딸기를 만들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담양농협에서는 작목회원들을 위한 강사를 초빙해 자체 교육도 하고 있다.

작목반 자체적으로 유통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 수확한 딸기를 상온에 그대로 며칠째 두고 품질의 변질 상태를 확인하며 스스로가 소비자의 입장을 각인시켜나가고 있다.

특히 일시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지라는 인식으로 매일 까다로운 선별과정을 통해 출하를 하고 있다.

한상열 담양농협 딸기 작목반 회장은 “임원들과 100여명의 회원들에게 매일 품질기준에 맞는 딸기를 수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토질이 척박해지면 좋은 품질의 딸기를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작목반 회원 모두 2~3년 숙성된 완숙퇴비만을 사용하고 다른 비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편집팀

한농 '한농'을 최고의 제품을 약속합니다.

언제나 농업인의 곁을 지키는 '농업인의 기업' 동부한농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용이 간편한 노동절감형 처리제 - 잿빛곰팡이병약

약흔이 없어 좋은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사파이어가 주인님의 일손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립니다.

동부한농 www.agriculture.co.kr 고객센터전화 : 1644-0901

2월 농산물 관측 정보

올해 사과와 배, 단감 등의 과일은 대체로 출하량이 줄고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오는 3월 이후 가격은 전반적으로 높겠지만 설 명절 대과 위주의 출하로 상품과 중품 간 가격 격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 재배면적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줄 듯 사과·감귤·단감 출하량 증가...배는 감소

사과 사과 2월 출하량은 2만1000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3월 이후에는 8만7000톤 정도로 28%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3월 이후 가격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높겠지만 설 명절 대과 위주의 출하로 인해 2월부터 상품과 중품 간 가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3만1000ha 정도로 전망된다. 유목면적은 지난해보다 3% 늘어난 1만ha로 예상되며 지역별로 충청·경북·호남지역이 지난해보다 2~5% 늘고 반면 경남지역은 밀양·함양에서 신규과원 조성이 거의 없어 지난해보다 5% 가량 줄어들 것으로 파악된다.

배 배는 올해 재배면적이 1만 5000ha로 지난해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재배면적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농가 고령화로 인한 폐원과 대체작목 전환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품종별로는 신고와 원황 재배면적이 올해보다 각각 1%, 황금배는 3% 기타 품종은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장배 출하량은 2월에는 8000톤으로 지난해보다 3%, 3월 이후는 5만1000톤으로 지난해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배 가격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높겠지만 설 명절 대과 위주 출하로 이달 이후 배 가격은 상품과 중품 간 가격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귤 올해 감귤 전체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조사됐다. 올 감귤재배는 시설재배에 대한 FTA 지원 사업으로 노지재배가 시설재배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품종별로는 노지은주, 월동은주, 기온 하우스은주 면적이 줄고, 무가온 하우스은주와 만감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2월 출하량은 3만 4000톤으로 지난해보다 7%, 3월 이후는 7000톤 정도로 3%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감 단감 2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9% 많은 1만 2000톤, 3월 이후는 3% 많은 1만 2000톤 정도로 전망된다.

올 단감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 감소한 1만 4000ha로 예상되며 재배면적이 감소한 요인으로는 농가 고령화로 인한 폐원, 도시개발과 매실·참다래 등 타 작목 전환으로 면적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편집팀